

[일반 논문]

고정희 시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A Study on Poems of Go, Jung Hee

정영주

(광주대학교 강사)

차 례

- | | |
|----------------------|--------------------------|
| 1. 서론 | 3. 시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
| 2. 시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세계관 | 1) 중심에 대한 저항으로의 풍자와 패러디 |
| 1) 남성 중심주의 권위의 해체 | 2) 여성성의 복원을 위한 사설 형식의 도입 |
| 2) 피식민적 모방 담론에 대한 거부 | 3) 자매애를 통한 삶의 출구 찾기 |
| 3) 물질 숭배와 타락에 대한 비판 | 4. 결론 |

1. 서론

고정희(高靜熙)는 한국 사회의 비약적 발전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당대를 '식민지' 상황으로 바라보는 독자적 시각을 견지한다. 시인은 그 안에서 계급, 민족, 성이라는 다층적 억압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주체적 여성의 현실을 여성 스스로의 눈으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시인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타자들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소외되어 있던 타자들이 오히려 '중심'이 아닌 '주변'에 있기에 더욱 자유롭게 전체 국면을 파악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근대적 사고와 체제의 위기에 직면해 이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힘은 주변부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해석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 이후에 등장한 '탈식민주의'¹⁾의 기본적인 세계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고정희의 시를 살핀 논문은 매우 영성한 편이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소설 장르의 연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시 장르의

경우에는 한용운과 김수영, 신동엽, 오장환 등의 시를 언급한 것이 있을 뿐이다. 고현철은 「평등과 해방을 위하여, 굶은 현실의 치유를 위하여」에서『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를 분석하였는데 ‘되받아쓰기’의 탈식민주의 문화 전략에다가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적 문화 양식의 패러디가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동순의 『그 바보들은 더욱 바보가 되어간다』의 상당 부분을 ‘되받아쓰기’의 탈식민주의 문화 전략으로 분석하면서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²⁾ 김승희의 「김수영의 시와 탈식민주의적 반언술」에서는, 김수영의 시세계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김수영의 시가 통문화적 혼종성 속에서 탈식민주의적 반언술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밝힌다.³⁾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고정희 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주로 그의 여성 해방 시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런 연구들은 고정희 시의 다양한 측면을 단순화하고 평면화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민중문학 진영에서는 고정희를 여성 민중 시인으로 평가하면서도 문학사적 차원에서의 언급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정희의 이러한 시세계를 통해 그의 시에서 탈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의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시적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탈식민주의란, “식민지 국가가 제국주의에 의한 정치적 억압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화적 혹은 경제적 제국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고 제국주의 억압 구조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최근의 문학 내지 문화 운동”이라고 고현철은 정의한다. 이석호는 식민지가 독립을 쟁취한 이후에도 여전히 억압된다고 했을 때 이를 독립 시기를 기준으로 ‘식민주의’와 ‘후기 식민주의’로 분류하며,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을 설정한다. 이때 탈식민주의는 포스트 콜로니얼한 상황에서도 식민화에서 벗어나려는 비교적 명료한 문제 의식으로 한정된다. 고현철, 「평등과 해방을 위하여, 굶은 현실의 치유를 위하여」, 《오늘의 문예비평》, 1992. 가을호, p.168.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p.12.

2) 《오늘의 문예비평》 제7호(1992, 가을호). 이 글은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고현철의 『구체성의 비평』(전망, 1997)에 수록되었다.

3) 김승희, 「김수영의 시와 탈식민주의적 반언술」,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21, 2000.

2. 시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세계관

탈식민주의란 식민성/탈식민성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동안 서구를 보편화하고 비서구를 식민화해온 문화제국주의의 논리들을 비판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러한 탈식민주의의 이론은 이항 대립적 인식의 세계 운영 방식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발원한다. 또한 자성의 위치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기획을 말한다.⁴⁾

구체적으로는 언어를 비롯한 교육 분야와 경제 문제, 정치 또는 지배 문화에 대한 동경과 또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새로운 억압 구조를 모두 식민지적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탈식민주의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잘 드러내 보여주며, 나아가 그러한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화 운동을 총칭한다. 탈식민주의적 글쓰기의 전략에 대해 방향타를 제시한 헬렌 티핀은 ‘지배 중심 체제와 그것들을 주변으로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이 탈식민주의적 글쓰기에 부여된 과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전복적 혹은 진보적 과정이야말로 탈식민주의적 글쓰기의 특징이며 문학적 보편성의 개념에 도전하는 반언술의 객관적 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권위의 부정이나 해체, 패러디, 억압된 것들의 귀환 등을 전략적으로 차용하면서 서구 제국주의와 이성 중심으로부터 온 식민주의자들의 근대적 기획과 문화적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그것을 ‘탈중심’화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언술을 전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티븐 슬레만은 탈식민적 글쓰기의 주요 전략으로 ‘알레고리’를 들고 있다. “알레고리는 탈식민주의적 글쓰기의 어떤 형태가 식민주의의 주목할 만한 형상적 기술의 비유적 전략과 교전하는 재현의 장이다. 다시 말하면 알레고리는 탈식민주의 문화가 문학적인 형상적 반대, 즉 텍스트의 반언술 행위의 산출을 통해 제국주의적 동화에 도전한 그것을 전복하려는 공간이 된다.”⁵⁾라고 탈식민주의적 글쓰기의 전략으로 알레고리를 중심에 놓는다. 호미 바바 역시

4) 김춘섭의, 『문학이론의 경계와 지평』, 한국문화사, 2001, p.379.

5) 스티븐 슬레만, 「제국의 기념비들 - 탈식민적 글쓰기의 알레고리와 반언술 행위」, 《외국문학》, 1992. 여름, p.63.

알레고리를 식민지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제국의 기호학에 대한 반대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⁶⁾

기본적으로 탈식민주의란 억압과 착취를 낳는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해체 또는 전복을 목적으로 한다. 고정희 시에서 이러한 탈식민주의 세계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1) 남성 중심주의 권위의 해체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의 권위주의 체계와 가부장 사회는 어떤 역사적 형태를 취하든 간에 동시에 작용하게 마련이다. 가부장제는 남성이 집 안팎의 권위 체제에서 나온 자원과 대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이것을 매개로 함으로써 권력을 지니는 체제를 말한다.⁷⁾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는 가부장제를 남성 지배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여성이 성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남성’ 계급이 ‘여성’ 계급에 대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⁸⁾ 즉 ‘남성’은 자신의 이념과 문화와 언어를 표준 규범과 절대적 진리로 만드는 제국주의적 언술 행위를 강요한다. 반대로 ‘여성’은 자신의 언어와 목소리를 잃고 침묵하는 식민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남성 중심의 권위 해체와 폭로는 탈식민주의 양상을 지닐 수밖에 없다.

시하층층 손발 되고
시하층층 시집살이
젊은 남편 침도 되고
늙은 남편 노리게 되어
장자 아들 밥이 되고
손자 증손 떡이 되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6) Homi K. Bhabha,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참조.

7) 한국여성학회, 『한국 여성학』, 1986, pp.21~22 참조.

8) 메기현, 심정순 외 역, 『페미니즘 이론 사전』, 삼신각, 1995, pp.21~23 참조.

오장육부 쓸개꺼정 녹아내린 어머니여

- 「첫째꺼리 - 축원마당」 부분⁹⁾

위의 시편에서는 사회 제도적 관습과 남성들이 짜놓은 가족 이기주의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왜곡된 여성상이 잘 나타나 있다. '시하층층 시집살이'로도 부족해 '젊은 남편 침모되고' '늙은 남편 노리개'로 전락하는 여성의 억압된 삶에 '쓸개꺼정 녹아내린'다고 토설한다. 시인은 남성 중심주의의 권위를 일종의 담담한 '보여주기(showing)' 방식을 통해 폭로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여성성의 가치를 옹호하고 있다.

2) 피식민적 모방 담론에 대한 거부

샤오메이 천의 『옥시덴탈리즘』¹⁰⁾은 동양이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으로 서양을 다양한 방식으로 곡해하고 활용한 사실을 분석해내고 있다. 여기서의 옥시덴탈리즘은 동양 특히 중국이 서양이라는 타자를 자국 국민에 대한 내적 억압 기능을 수행하는 민족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곡해하고 활용한 억압의 담론인 관변 옥시덴탈리즘과 서양이라는 타자를 곡해하여 전체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적인 억압에 저항하는 정치적 해방에 활용한 옥시덴탈리즘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문썩마다 번쩍거리는 저 미제 알파벳은
아시아를 쯤먹는 하나의 음모이다
거리마다 흘러가는 저 자본의 물결은
아시아를 목 조르는 합법적 강간이다
지프니 양철지붕 밑에

9) 고정희,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창작과비평사, 1989, p.11.

10) 샤오메이 천, 정진배 외 역, 『옥시덴탈리즘』, 강, 2001.

11) 위의 책, pp.9~48 참조.

알록달록 새겨놓은 저 암호문이나
모든 슈퍼마켓과 대형백화점에 면밀하게 진열된 양키즘은
세계 인민의 기동서방을 자처하는
매관자본의 매춘문화이다
저것은 아시아의 추억이 아니다
저것은 아시아의 우정이 아니다
저것은 아시아의 역사가 아니다

- 「브로드웨이를 지나며」 부분¹²⁾

고정희는 위의 작품을 통해 ‘미제 알파벳’으로 처리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자본의 물결’이라는 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이 제3세계인 가난한 나라 ‘아시아’를 여전히 ‘좀 먹고’ ‘목 조르는’ 식민지적 지배일 뿐이라고 갈파한다. 따라서 시인은 여전히 식민 상태에 있지만 ‘경보 장치가 없는’ 아시아를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호명한다.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상표’는 ‘아시아인’의 ‘희망’이 결코 ‘아니’며,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팝송 가락’도 ‘아시아’인의 ‘신명이 아니’라고 통렬하게 규정한다. 그것은 ‘칼자루를 쥔 제국의 음모’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호비 바바는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모방 이론을 차용하여, 모방이야말로 피식민 타자의 전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피식민지인들은 서구 근대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모방함으로써 타협하게 되고, 타협은 혼성, 잡종성을 드러낸다고 한다. 이 같은 피식민적 모방 담론에 대한 고부의 감각은 고정희의 또 다른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형백화점에 진열된 갖가지 유니폼을 보면 나는 슬며시 불 지르고 싶어집니다 시
대별 유니폼 속에 단정하게 개겨넣은 밥-이데올로기, 그 속에 스며 있는 우아한 노예
패션, 뽀까번쩍 포장한 프렌세스 라인이며 로열박스 리본에 후르르르 불을 당겨

12)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창작과비평사, 1992, pp.13~14.

이열치열 불마당 만들고 싶어집니다

하인들이 열고 닫는 대문을 보면 나는 이심전심 불 지르고 싶어집니다 우람한 대문으로 넘나드는 명부전의 자부심과 높다랗게 치솟은 치부의 쇠창살, 난공불락 이기주의 담쟁이덩굴에 화르르 불을 당겨 우리의 소원은 평등…… 꿈에도 소원은 분배 …해방의 모닥불 만들고 싶어집니다

튼튼하게 정돈된 거짓말이 거룩하게 쏟아지는 벼슬아치 입을 보면 나는 확 불 지르고 싶어집니다 거짓말의 높이를 상징하는 고관대작의 사다리, 재벌과 축복을 협상하는 권력의 위패, 그 앞에 꿇어앉은 산을 옮길 만한 어깨들의 요란스런 충성 기도와 영원히 숙청하지 않으면서 숙청이란 낱말에만 광란하는 저 시뻘건 부정부패 푸닥거리에 우렐렐릴 까궁! 까궁! 불을 당겨 희망의 불쏘시개 만들고 싶어집니다

- 「우리를 불지르고 싶게 하는 것들」 부분¹³⁾

고정희는 「우리를 불 지르고 싶게 하는 것들」에서 ‘대형 백화점에 진열된’ 잡종 문화들을 보고 그 속에 침투된 문화 식민의 이데올로기들을 지적하며 ‘불마당 만들고 싶어’진다고 통렬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국주의의 국가들에 대한 강렬한 동경과 이미지의 내면화와 동질적 욕망에 대한 피식민자들의 각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민적 욕망을 극복하기 위한 탈식민적 의지는 ‘하인들이 열고 닫는 대문’이나 ‘거짓말이 거룩하게 쏟아지는 벼슬아치 입’과 ‘재벌과 축복을 협상하는 권력의 위패’, ‘시뻘건 부정부패 푸닥거리’, ‘너무 많은 땅문서 너무 많은 돈문서’ 등 탈식민을 위해 ‘불을 당겨 희망의 불쏘시개를 만들고 싶’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3) 물질 숭배와 타락에 대한 비판

식민 제도는 냉혹한 억압과 배제를 수반하지만 그 규율에 예속되는 대가로

13) 고정희, 위의 책, pp.45~46.

‘생활’의 힘을 증진시키는 권력 장치를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제도의 규율에 동화되는 순간 생활의 능력은 확장되지만 그 동일성의 체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폐쇄된다.¹⁴⁾

시인은 자본주의의 물질 숭배, 그 타락의 상징으로 압구정동을 들고 있다. 압구정동을 ‘구정동’이라 하여 (「구정동아 구정동아」) 구정물을 환기하고 있다.

구정동아, 구정동아, 구정동아
시대의 재난이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에
너는 망령보다 고약스런 거드름을 피우며
가난한 백성과는 상종조차 멀리하고
축재를 뽐내는 특권층이 되려느냐?
탐욕의 피라미드에 금테를 덧입히고
피묻은 바벨탑에 장식을 매달면서
교만의 기운이 문전마다 짙 았구나
네 몸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밤마다 내 침상을 둘러싸는구나
향유를 말로 부어도 소용없다
내 미련이 이리 큰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너를 태어나게 하지 말 것을
너희에게 내린 물질의 기적을
판자촌과 동두천에 내렸더라면
네 타락이 그리 깊지 않았을 것을
그 날에 포주와 살인범이
너보다 다행스럽다 말하게 되겠구나
강남아, 가파르나움아
가혹하고 고통스런 환란의 시대에
내 백성의 피땀으로 호화스러움을 누린 자는 다

14) M.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1994, p.207.

무서운 폐허에 떨어질 것이다!
 정녕 나는 너를 어찌란 말이나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땅에 내 백성이 거하지 않는구나

- 「구정동아 구정동아」 부분¹⁵⁾

이 시편은 시인이 현재화된 예수의 시점을 빌어 물질 숭배와 타락상을 질책하고 있다. 구정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내린 물질의 기적’을 차라리 ‘판자촌과 동두천에 내렸더라면’하고 시인은 비탄에 잠긴다. 그렇다면 ‘네 타락이 그리 깊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책망한다. 가파르나움은 히브리어 케파르(마을)와 나훔(인명)의 합성어로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구약성서에 보면 예언자 나훔이 있지만 그 예언자와의 관계 유무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초대 교부(오리게네스와 예로니모 등)들은 ‘나훔’이란 말이 인명이 아니고 ‘위로하다’ 또는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교부들의 말에 따르면 ‘위로의 마을’ 혹은 ‘아름다운 마을’이 된다.

3. 시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

한국문학사에서 여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때는 1980년대 이후부터다. 1960년대는 여성 작가들 스스로도 여성 문제를 담은 문학 세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갇힌 ‘여류(女流) 문학’의 범주를 벗어나지도 못했다. 이처럼 여성 작가들마저 여성 문제를 현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수용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중반 들어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현실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성적 편견과 직업적 차별 등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인식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대 후반 ‘여성’들이 ‘여성문제’를 ‘여성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로 부

15)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앞의 책, pp.36~41.

각시키면서 페미니즘 담론의 논의의 틀이 형성되었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성’을 물질적인 삶의 맥락에서 탐구한다. 성과 문화, 계급과 민족 등 다양한 차원의 물질적 현실의 문제들이 교차되는 물질적 삶의 맥락 속에서 여성의 몸은 단지 생물학적인 신체만이 아닌 성, 문화 그리고 계급과 인종의 맥락이 통과하는 장소가 되고, 그로부터 나타나는 여성성은 가부장적 남성성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민족적, 계급적 모순이 나타나는 사회 역사적 현실을 변혁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다시 말해 여성과 같은 하위 집단이야말로 식민지 근대의 복잡한 모순을 체현했던 역사적 존재로서 이들의 몸에 체현된 식민지 근대의 복합성에서 식민지 근대의 지배 구조와 근대적 인식론을 전복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며, 따라서 이들 여성 하위 주체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서는 해체된 한 쪽을 다른 한 쪽으로 손쉽게 대체하기보다는 그 구조 자체의 억압성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본다.¹⁶⁾ 이는 지배 담론의 거짓이나 오류를 폭로하기 보다는 지배 담론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진리’라는 것이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끄럽고 투명한 것처럼 보이는 지배 담론의 내부로부터 모순과 틈새 혹은 애매모호함과 같은 ‘주름들’ 혹은 ‘흠결들’을 찾아냄으로써 지배 담론의 권위와 이른바 ‘진리’라고 명명하는 것들을 의심하고 나아가 현재로서는 그것들을 전복하기에 불가능한 조건들을 가능성의 조건들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의 전면에 서사시 창작과 여성 운동을 펼치던 고정희의 시세계를 점검해본 후 식민지로 인식하고 있는 당대와의 관계 속에서 여성 주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의 의의를 살피도록 하겠다.

16)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언, 2001, p.94.

1) 중심에 대한 저항으로의 풍자와 패러디

한국에서의 여성주의는 민중 운동의 남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탈중심, 탈이념, 다원화를 향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한 다양한 탈근대적 작업 가운데 현재까지 그 맥을 지속시키고 발전시켜오는 거의 유일한 운동인 여성주의는 사회 활동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다.¹⁷⁾

‘여성’은 도상이 아니라 일종의 기호인 것이다. 즉 구체적인 여성과 기호로서의 여성 사이에는 단순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왜곡’이 있다.¹⁸⁾ 고정희는 이 왜곡에 저항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고정희가 택한 방법은 주로 전통적인 풍자의 형식 사용이다. 풍자는 기본적으로 공격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풍자는 해학과 대립되기도 한다. 해학이 대상을 부정하면서도 이 부정의 대상에 동정적인 입장에 서 있는 반면, 풍자는 대상을 철저하게 부정한다.¹⁹⁾ 이러한 풍자의 유형으로는 야유(揶揄)·냉소(冷笑)·조롱(嘲弄)·기지(機智)·패러디(parody)·언어유희(pun)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상을 높이기보다는 깎아내리고,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격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²⁰⁾

고정희 시편에 풍자적 어조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공격을 통해 여성의 억압 체제를 해체하고자 하는 의지의 작용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한때 서울에서는 이장호 감독이 만든 영화 어우동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하더이다 모르긴 몰라도 이장호의 어우동이 여자를 색으로 포장하여 팔았지 않았을까 의심 하였더이다. 어우동은 지승문 박성생의 딸이외다. 그의 집은 돈이 많고 자색이 자자

17)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여성 인권을 향상시킨 나라로 꼽히는 한국에는 국내 어떤 운동보다 역사가 깊고 관련 단체도 많은 여성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경선, 「NGO지도 4. 여성 운동 단체」, 《중앙일보》 1999. 5. 7.

18) 김두한, 「‘여성’ 그 왜곡된 기호에 대한 시적 저항」, 《여성문제연구》 제20집,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92, p.8.

19)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5, p.178.

20) 윤석산, 『현대시학』, 새미, 1996, p.326.

하되, 종실 태강 군수와 혼인하여 정실부인의 위엄 골고루 갖췄으나 그 정실부인의
고상한 이름이 사실은 고상 아닌 남자들의 독점 여색 즐기기를 깨우쳤더이다

이에는 이로 허허실실 손자병법을 깨우친 어우동 활달한 성품과 거침없는 천성대
로 독점 주색 쫓아내기 싸움을 벌이는데, 하룻밤은 젊고 흰칠한 도공과 하룻밤은 이
쁘고 재능 많은 소년과 하룻밤은 갓 스물 암행어사 청년과 하룻밤은 길가는 선비를
끌어들여 하룻밤은 콧대 높은 방산 군수 코를 매어 술잔에 정과 사랑 그득그득 부었
으되, 조정에서 이를 알고 국문하기 매일이요 혹은 고문 받고 폄직되고 먼 곳으로 귀
양 간 선비가 수십 명이며 죄상이 드러나지 않아 화극 면한 자들도 수 십 명에 달했
다 하더이다

- 「지승문의 딸 어우동」 부분²¹⁾

이들 시에 나타난 ‘어우동’은 생물학적 차원으로 왜곡된 여성이라는 기호에
저항하여 남성이라는 기호를 그것과 마찬가지로의 차원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이 때의 남성은 남근 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화자는 어우동이 현대의 영
화에서 상업성에 의해 색정을 밝히는 여인으로 왜곡된 것을 비판하면서, 어우
동이 조선 시대 여성에게만 가해지던 성적 억압의 삶을 일찌감치 깨우친 여성
이었음을 일깨우고 있다. 이러한 여성사에 대한 왜곡을 고정화는 역사적 인물
을 화자로 불러들여 이야기하고 있다. 시대를 초월하여 여성이 억압의 삶을
살아왔으며, 역사의 장에서 여성이 소외되고 왜곡되었던 사실을 깨우침과 동
시에 이러한 실상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 하나 고정화는 ‘패러디’²²⁾를 통해 중심에 대해 저항한다. 저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원을 따지는 것이 ‘중심주의’의 한 전형이 되는 상황에서 작가의
권위를 비웃는 패러디의 형식이야말로 ‘중심주의’를 해체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패러디가 중심주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때, 페미니즘
의 입장에서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그것을 채택하는 것은 자연스러

21) 고정희, 『여성해방출사표』, 동광출판사, 1999, p.26.

22) ‘패러디’는 본래 풍자 기법의 하나에 속했으나 오늘날에는 풍자의 하위 단위가 아닌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의 꼭대기에 앉아 계신 우리 자본님
가진 자의 힘을 악랄하게 하옵시매
지상에서 자본이 힘있는 것같이
개인의 삶에서도 막강해지이다
나날에 필요한 먹이사슬을 주옵시매
나보다 힘없는 자가 내 먹이사슬이 되고
내가 나보다 힘있는 자의 먹이사슬이 된 것같이
보다 강한 나라의 축제를 복돋으사
다만 정의나 평화에서 멀어지게 하소서
지배와 권력과 행복의 근본이 영원히 자본의 식민통치에 있사옵나

- 「밥과 자본주의-새 시대 주기도문」 전문²³⁾

위의 시편은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패러디하여 지금 이 땅에서 하느님 대신 숭배 받고 있는 ‘자본’의 악령의 본성을 마음껏 풍자하여 그 우상의 허물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제문 형식(‘상향’)을 패러디함으로써 ‘자본’의 죽음을 미리 조상하고 있는 것은 이 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즉 이 시편에서 패러디된 텍스트인 <주기도문>은 서구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연관되는 담론이며 이를 되받아 쓰고 있는 패러디한 텍스트 「새 시대 주기도문」은 이에 저항하는 피지배 주체의 담론이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기도문」과 「새 시대 주기도문」은 반대 형식의 패러디가 형성되는 것이다.²⁴⁾

23)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창작과비평사, 1992, p.22

24) 고현철, 앞의 책, p.202 참조.

2) 여성성의 복원을 위한 사설 형식의 도입

남성 중심 사회 혹은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왜곡된 가치관에 의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은 지식층에 편입되기 어려운 사회 문화적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은 자연스레 중심의 문학 행위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여성들은 문자로 이루어지는 문학보다는 간편하고 전달하기 쉬운 방식인 구술 형태의 문학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더 발휘해왔다.²⁵⁾ 이렇게 볼 때 굿이나 민요, 설화 등의 사설 양식은 여성들에게 친근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고정희는 이러한 사설적 형식의 장시를 통해 남성적 권위를 해체하고 훼손된 여성성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조선 여자 환갑이른 세상에 무서운 것 없는 나이이지만
내가 오늘날 어뜬 여자간디
이 풍진 세상에 나와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똥배짱으루
사설 한 대목 늘어놓는가 연유를 묻거든
세상이 묻는 말에 대답할 것 없는 여자,
그러나 세상이 묻는 말에 대답할 것 없는 팔자치고
진짜 할 말 없는 인생 못 봤어
내가 바로 그런 여자여
대저 그런 여자란 어뜬 팔자더냐 (장고, 쿵떡)

-「몸 바쳐 밥을 사는 사람 내력 한마당」 부분²⁶⁾

시편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여성상은 풍진 세상에 나와 가진 것 없고 배운

25) 이와 관련하여 펄 모리스는 “여성들의 활약은 특별히 구어체나 노래체의 시, 즉 발라드, 동요, 주문, 수수께끼, 민요 등과 연관된 시 전통에서 두드러진다”고 말한다. 펄 모리스,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9, p.139 참조.

26) 고정희, 위의 책, pp.82~83.

것 없는 여성이다. 그 여성은 세상이 묻는 말에 대답할 것도 없는 여자로, 환 잡이 되어서도 무서울 것이 없는 여자이다. 그러한 여자는 '추풍낙엽 동지선 달 긴긴 계절에도/거저 주는 밥 한 그릇 못 먹은 인생'이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몸밀천'이 전부인 것이다. 이 시편에서는 '백성의 오복길흉이 마치' 자기를 '홍망에 달려 있는 것처럼 / 오구잡탕 거드름을 떠는' '정치 갈보'와 '권력 갈보'를 '상갈보'라 하여 정치 권력자를 신랄하게 풍자, 비판하고 있다. '정치 갈보 몰아내고 민주 세상 앞당기자'라는 자칫 표어와도 같은 시어는 시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집약해 보여주고 있다.

3) 자매애를 통한 삶의 출구 찾기

고정희 시인이 제시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문화란 여성들끼리 서로를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서로를 감싸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여성들 스스로가 공동 운명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자매애를 고취시켜 진정한 여성성의 문화인 평등과 자유의 문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방전선 여자들 일어설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평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엌대기 여자들 일어설 때입니다

- 「해방전선 여자들 일어설 때입니다」 부분²⁷⁾

고정희는 여성들이 여성 운동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삶과

27) 고정희, 앞의 책, pp.73~74.

운명을 결정하기 위하여 여자들이 일어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가능하며 여성들의 참여 의식과 연대 의식을 필요로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상처를 들여다보고 상처를 위로해주는 ‘우리’라는 의식은 ‘자매애’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명명된다. 이처럼 자매애적 유대는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부장적 제도 바깥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삶의 공간을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매애적 유대는 딸들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가족 내에서는 어머니와 딸, 자매들의 관계, 이웃 여자들과의 관계로 확장시켜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한다.²⁸⁾

나아가 고정희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된 ‘모성’을 여성 해방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즉 여성 억압의 대표적인 희생자로 어머니를 설정함과 동시에 시대적 어둠과 여성 억압의 현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를 모성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총칼로도 가를 수 없고
이념으로도 가를 수 없는 큰 강물
겨레강물 민족강물 통일강물 도도하여
천지신명 어머니강물 삼천리에 엄연하여
그 위에 삼라만상 뿌리 생생하니,
기껏해야 칠십 평생 우리 인생이라지만
억겁 만년 어머니강물 위에
겨레 통일염원 한뜻으로 어롭니다
세계 평화숙원 합심으로 어롭니다

-「일곱째거리 통일마당 - 6.통일강물 어머니강물 삼천리에 엄연하여」 부분²⁹⁾

위 시편에서의 ‘어머니’는 우리의 근본이고, 화해와 숭고의 대상이다. 어머

28) 이덕화, 『여성 문학에 나타난 근대 체험과 타자 의식』, 예림기획, 2005. pp.304~305.

29) 고정희,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창작과비평사, 1989, p.130.

니는 억압과 수난의 대상이면서, 이 시대의 어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이다. 모성이야말로 가부장제의 권위적인 문화뿐 아니라 분단의 모순과 세계 평화까지 화해와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권 중심주의 페미니즘 이론을 주장한 길만에 의하면 ‘모성적 에너지 즉 모성애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결합력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능력이 발전적이고 협동적인 새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³⁰⁾고 하였듯이 고정희는 자매애와 모성주의를 바로 남성 중심 문화의 대안적 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운동이 실천해야 할 목표는 단순한 남녀간의 평등이 아니라 계층적 모순과 불평등 해소 그리고 민주화 성취와 분단 구조의 극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고정희 시세계에 내재해 있는 탈식민주의 세계관과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에 대해 살펴보았다.

‘탈식민주의’란 식민지 국가가 제국주의에 의한 정치적 예속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문화적 혹은 경제적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바로 보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적인 억압 구조로부터 궁극적인 해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언어를 비롯한 교육 분야와 경제 문제, 정치, 또는 지배 문화에 대한 동경 등과 또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새로운 억압 구조를 모두 식민지적 상황으로 파악한다. 탈식민주의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잘 드러내 보여주며, 나아가 그러한 시대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화 운동 내지는 문예 운동을 말한다.

고정희의 탈식민주의 세계관은 시 안에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첫째, 남성 중심주의 권위 해체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고정희는 사회 제

30) 길만은 ‘모성성’을 통합의 능력, 허비하고 파괴하기보다는 창조하고 절약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봄으로써 새로운 사회 발전을 꾀하는데 ‘자매애’와 ‘모성적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세계는 궁극적으로 자비로운 여성의 정서적 특성을 표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핀 도노번, 김익두 외 역,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4, pp.92~93.

도적 관습과 남성들이 짜놓은 가족 이기주의와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왜곡된 여성상을 폭로하면서 남성 중심주의의 권위를 해체한다. 이를 통해 동등한 여성의 권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피식민적 모방 담론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다.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에 대해 그것을 제국의 음모로 규정한다. 자국의 문화가 주변부에 위치하고 문화의 중심이 제국의 문화로 변해가는 현실에 대해 고정희는 통렬한 비판을 가하며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는다.

셋째, 물질 숭배와 타락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다. 시인은 자본주의의 물질 숭배와 타락의 상징으로 하나의 공간을 상징하여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교회의 물질 숭배와 타락상을 질책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 대항하고 그 허구와 타락을 비판한 것이다.

Ⅲ 장에서는 고정희 시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탈식민주의적 페미니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전통적인 풍자와 패러디의 형식 사용으로 나타난다. 풍자는 기본적으로 공격성을 내포하고 있다. 고정희의 시에 풍자적인 어조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공격을 통해 여성의 억압 체제를 해체하고자 하는 의지의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정희는 패러디를 통해 중심에 대해 저항한다. 이는 결국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저항과 상통한다.

둘째, 여성성의 복원을 위한 사설 형식의 도입으로 나타난다. 굿이나 민요, 설화 등의 사설 양식은 여성들에게 친근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고정희는 이러한 사설적 형식의 시를 통해 남성적 권위를 해체하고 훼손된 여성성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정희는 판소리 양식을 차용해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과 특권 지배 계층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시편들은 결국 남성 지배 문화 속에서 여성의 건강한 삶의 출구 찾기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고정희는 '자매애'를 제시한다. 자매애적 유대는 부권적 질서를 강요하는 강압적 이성애에서 벗어나 가족 바깥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페미니즘 논자들이 제시하는 사랑의 새로운 시도이다. 고정희가 제시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문화란 여성들끼리 서로를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서로를 감싸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여성들 스스로가 공동운명체임

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것이라 보고 있다.

이러한 시적 속성과 성취로 인해 고정희는 우리 현대 시문학사에서 매우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정희,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창작과비평사, 1989.
- 고정희, 『여성해방출사표』, 동광출판사, 1999.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창작과비평사, 1992.
- 고현철, 「평등과 해방을 위하여, 굶은 현실의 치유를 위하여」, 《오늘의 문예비평》, 1992, 가을호.
- 김승희, 「김수영의 시와 탈식민주의적 반언술」,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21, 2000.
- 김춘섭 외, 『문학이론의 경계와 지평』, 한국문화사, 2001.
-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5.
- 이경선, 「NGO지도 4. 여성 운동 단체」, 《중앙일보》, 1999.
-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 이덕화, 『여성 문학에 나타난 근대 체험과 타자 의식』, 예림기획, 2005.
- 윤석산, 『현대시학』, 새미, 1996.
-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1986.
-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언, 2001.
- 조세핀 도노번, 김익두 외 역,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4.
- Homi K. Bhabha,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2002.
- 메기험, 김정순 외 역, 『페미니즘 이론 사전』, 삼신각, 1995.
- M.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1994.
- 스티븐 슬레만, 「제국의 기념비들 - 탈식민적 글쓰기의 알레고리와 반언술 행위」, 《외국문학》, 1992, 여름.
- 샤오메이 천, 정진배 외 역, 『옥시덴탈리즘』, 강, 2001.
- 팜 모리스,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9.